

# 방사능 공포... “어린이집 식단서 수산물 빼주세요”

### 네살 아이 둔 40대, 광주 북구청에 민원 제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단체급식에 수산물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는가 하면, 일선 자치단체는 수산물 급식을 자체해달라는 공문을 보육기관에 발송하기도 했다. 정부가 후쿠시마현 등 일본 8개 현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안감은 잠잠해지기는 커녕 확산하는 모양새다.

광주시 북구는 26일, 어린이집에 다니는 4살 자녀를 둔 조모(40)씨가 ‘어린이집 식단에 수산물과 어육을 빼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송광운 구청장에게 “일주일 3~4차례 어린이집 식단에 고등어 조림·해물 완자·어묵 볶음 등 해산물이나 어육이 나오는데, 너무 걱정이 된다”면서 “어린이집 식단에서 방사능 오염 우려가 큰 수산물에 대해서는 (식단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썼

### ■ 학부모

**일본 수산물 계속 수입**  
**아이들 식단에**  
**해산물 주 3~4회 나와 불안**  
**고등어·어묵 등 제외를**

다.

그는 특히 “(북구청이) 수산물을 식단에 포함하지 않도록 자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역 어린이집에 보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 ■ 북구청

**북구 어린이집 337곳**  
**급식지원센터 등에**  
**수산물 급식 자체 요청**  
**협조공문 보내기로**

일본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수가 바다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난데다,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불안감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북구청은 분석

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원산지 허위 표시 혐의로 107건을 적발한 바 있다.

조씨는 “일본이 최근 공개적으로 방사능 오염 유출수 300t을 바다에 버린다고 시인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 수산물을 계속 수입하고 있다. 이런 수산물을 먹고 먹을 수가 없다. 너무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철저한 검역으로 일본산 수입 식품 수가 줄어들었다면 정부가 돌연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수산물 정책 때문에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북구는 조씨 주장을 긍정적으로 해석,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북구 지역 민간·가정·법인 등 337곳 어린이집에 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북구 뿐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어린이집 식단에 비슷한 공문을 보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북구 관계자는 “조만간 관내 전체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에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신중히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니웃침 (8893)



## 수산물 유통업체·어촌계장 짜고 150억 허위계산서 발급 세금포탈

### 여수해경, 21명 검거

3년간 150억원 대의 허위계산서를 발급받아 사용한 수산물 유통·가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은 26일 여수의 한 어촌계 명의로 150억원대의 허위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경남 사천의 A수산 대표 박모(51)씨 등 20명과 어촌계장 박모(61)씨 등 모두 21명을 불검아 조사중이다.

해경은 박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피조계, 바지락 등 패류를 여수 S어촌계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150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다. 또, 박씨는 S어촌계 사업자등록 명의의 허위계산서를 총남, 경남, 전남 등 전국 130여 곳의 수산물 유통·가공업체 등에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결과 이 업체들은 박씨로

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원산지 불명의 무자료 패류를 거처에 판매하면서 매일 증빙 자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촌계와 업체간 매입·매출 자료를 맞춰 세무당국의 의심도 피했다.

갑작같은 이들의 범행은 232명에 달하는 S어촌계원들이 난데없는 세금폭탄을 맞으면서 불거졌다. S어촌계의 연평균 소득은 10여만원으로 한 사람당 연 400여만원 수준이었는데 이것이 5배가량 치솟으면서 면세됐던 소득세가 나오거나, 기초수급대상에서 탈락위기에 처한 계원들이 생겨나면서다. 이들이 세무당국 등에 항의하면서 사건의 실체는 수면위로 떠올랐다.

해경은 1억원 이상 허위계산서를 제공받은 업체의 대표 등은 소환 조사를 계획하며, 위법 업체에 대해 해당 지역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공무원들 인명구조 훈련

26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영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13 다수 사상자 발생 구급대응 모의훈련'에 참가한 공무원 등이 119구급대원들의 지도 아래 인명구조교육을 받고 있다.

26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영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13 다수 사상자 발생 구급대응 모의훈련'에 참가한 공무원 등이 119구급대원들의 지도 아래 인명구조교육을 받고 있다.

/최혜배기자 choi@kwangju.co.kr

##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 파기환송심서도 무기징역

### 광주지법 선고

집에서 자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고모(24)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4부(이창환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처벌 특별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미 사제된 형법상 영리약취·유인죄 관련 조항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점을 감안해 기존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지만 형량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고씨나 잠재적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싸 납치해 인근 영산대로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 2심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2월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조현오 징역 8월 선고 재수감

### 〈전 경찰청장〉

### 노 전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26일 항소심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소1부(전주재 부장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거 없이 많은 의혹을 확산시키고 국민 분열을

조래해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2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질서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8일 만에 풀려난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해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경찰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자살한 것처럼 발언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광주 총경급 간부 검찰

광주지역 총경급 경찰 간부가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으로 경찰청 검찰을 받고 있다.

26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광주지역 A 총경이 전남 지역 경찰서장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검찰 담당관들을 파견해 달 법리 적용 실수를 지적하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살펴보는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관 집에서 금품 탄 간 큰 도둑

○경찰관 집에서 4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난 ‘간 큰 도둑’을 경찰이 수사 중.

○26일 영광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5시 사이에 영광군 영광읍 A경위 집에 누군가 침입해 금고에 있던 수표·현금·귀금속 등 4600만원을 털어 갔다는 것.

○영광 B파출소 A경위는 야간 근무를 앞두고 잠시 집에 들렀다가 도둑이 든 사실을 알고 “낯은 집을 증축하려고 마련해 둔 돈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

/영광=조익상기자 ischo@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침 기술, 고주파 지방분해 기술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 금남로 ● 대한생명 ● 구.한미쇼핑 ● 동부소방서 ● **북경당 한의원**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후7시 / 토요일 : 오전9시~오후4시 /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0130-공-26%호

##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7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려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암지구, 영광, 어등산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투심속 친환경 명품주택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6166-0013 / 010-2475-0933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욕실,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팀평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산구 381-0061 / 서구 352-7788 / 남구 676-7719 / 북구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 목포[건영] 243-7463 / 순천 744-8605 /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